

삼성카드,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 개최

- 삼성카드, 정도영업 실천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삼성카드(www.samsungcard.co.kr)는 11월 11일(월) 본사 3층 국제 회의실에서 이경우(李庚雨)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정도영업의 핵심 덕목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을 갖고, 기업의 상거래 질서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카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은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CP의 제1단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인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기업의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준법시스템이다.

삼성카드 이경우 사장은 자율준수 선언문을 통해 “기업은 좋은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생산할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를 중시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의 자율적인 상거래 관행 정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질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남아 사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 “공정거래 자율준수旗” 전달 등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다잡했다.

삼성카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카드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만큼,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은 카드업계 시장 상황이지만 업계 리딩 기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계속해서 확산, 발전시킬 계획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분위기가 전 카드업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J홈쇼핑,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내부 준법시스템 완비
- ▶ 정기/특별 교육 실시 및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 ▶ 공정거래 위반 사전예방으로 투명경영 강화

CJ홈쇼핑(대표 조영철, www.cjmall.com)은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임직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을 가졌다.



CJ홈쇼핑은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기획, 약 3개월간의 도입 선행활동을 통해 자율준수 조직구성과 규정 제정 및 편람 제작 등을 완료하고 11일 선포식을 거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CJ홈쇼핑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를 계기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해 공정거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투명경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CJ홈쇼핑은 영업·구매 등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결사례 등에 대한 정기교육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정거래법 일반사항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자체 제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도 전 부서에 배포한다.

한편 CJ홈쇼핑 조영철 사장은 “공정거래야말로 상호신뢰를 통한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라며, “공정거래 준수 문화가 확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롯데정보통신(주)
권 오 훈

S사업, 컨설팅사업, 솔루션사업,
N/W사업, 별정통신, S/W유통사업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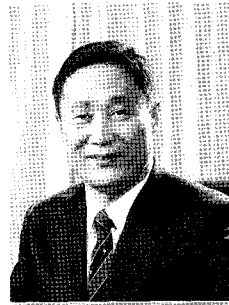
한국DTS
이 중 우

자동차부품 제조업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1-2
대덕빌딩 3층



주식회사 로템
정 학 진

철도차량, 산업기계 제조업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



위아 주식회사
김 평 기

제조업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52-5
한산빌딩 2층